

1. 현황

1) 국내 3차 HPAI 발생

2008년 국내에서 세 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지난 4월 1일 전북 김제(3일 확진 판정)에서 발생한 후 서울, 대구, 부산 등 인구 밀집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국내 3차 발생). HPAI 발생 이후 정부는 발생지역 기준 3km 이내의 위험지역에 위치한 가금류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였으며, 경계지역(10km 이내)에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6월 16일 현재까지 살처분 마리수(예방적 살처분 포함)는 닭·오리 836만수에 이르렀으며, 정부 구매 가금류 또한 1천 5백 만수에 이르고 있다.

2) 인구 밀집지역까지 AI 확산

2003년, 2006년과 같이 3차 HPAI 발생의 원인은 철새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5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과거와 달리 올해 발생한 HPAI는 봄철에 발생, 전파속도가 빨랐다는 점, 그리고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까지 확산된 점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5월 12일을 마지막으로 발생 건수가 없어 HPAI가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 추가발생 없을 경우 6월 말경 이



이형우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제한조치를 완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HPAI 발생 이후 소비 심리 위축으로 육계 가격이 하락하였다. 최근 소비가 회복되면서 여름철 복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심리 또한 커지고 있다. 올해 업계는 고유가, 곡물가격 고공행진, HPAI 발생 등으

로 매우 어려운 경영 여건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하반기 육계시장에 대해 조심스럽게 전망하고자 한다.

2.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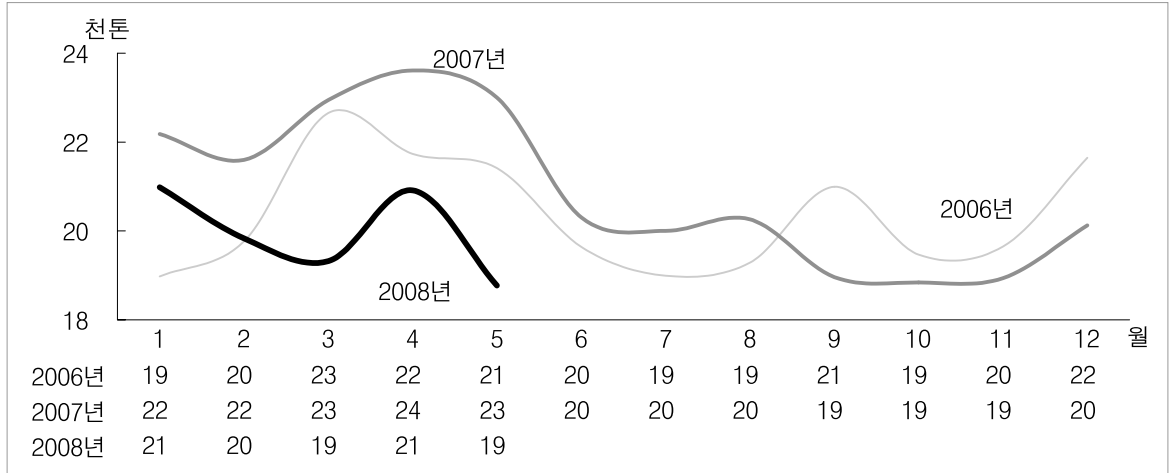
1) 살처분 등으로 종계 배합사료 생산량 크게 감소

HPAI 발생 등으로 지난해 육계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장기 불황이 예상되어 2007년 4분기부터 계열업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종계 도태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2008년 1~4월 육용 종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보다 10.3% 감소한 81,059톤이었다. 5월 종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보다 20% 감소한 18,773톤이었다.

최근, HPAI 발생으로 종계 57만수가 살처분되었으며 6월 이후 종계 감축(60만수)이 계획되어 있으나 계획에는 많이 모자란 물량이 신청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7월 닭



〈표 1〉 지난 4년간 종계분양현황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고기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될 5월 육용 종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종계가 환우에 들어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도태될 경우 하반기를 비롯한 연말까지 종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종계 도태로 병아리 잠재력 낮아 도계수수 감소

종계 입식수수가 감소하고 도태가 증가하여 8월 말복(8월 8일)에 영향을 미치는 병아리 생산 잠재력 또한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여름철 이후 연말까지의 병아리 잠재력 또한 전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종계 감축이 마무리될 경우 복 이후 연말까지 병아리 생산 잠재력 감소폭은 더 커질

〈표 1〉 육용 실용계 병아리 생산 잠재력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2008년(A)	96.0	89.2	88.9	92.3	92.3
2007년(B)	100.0	95.7	99.4	105.4	109.0
증감률 (A/B, %)	-4.0	-6.7	-10.5	-12.4	-15.3

※ 주 : 잠재력 지수는 입식된 7개월전 10개월 누적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육용 종계 도태수수를 고려하여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추정함.

※ 자료 :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이후 연말까지의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전년보다 낮아 육계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육수수 감소로 도계수수 또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3) AI 발생으로 소비 위축되어 닭고기 냉동비축 증가

HPAI 발생 후 닭고기 소비 감소로 6월 8일

〈표 2〉 냉동 닭고기 비축현황(6월 8일자 기준) (단위: 천수)

구분	미절단	절단	부분육	삼계	계
2008년(A)	7,340	569	2,938	3,266	14,113
2007년(B)	3,966	455	3,602	1,496	9,519
증감률 (A/B, %)	85.1	25.1	-18.4	118.3	48.3

※ 자료: 한국계육협회(회원사)

닭고기 냉동 비축은 3월말(493만수)대비 2배 이상,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한 1천 4백만 수(계육협회 회원사)였다. 계육협회 회원사, 비회원사, 정부 등에서 비축한 물량은 육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철 닭고기 수요 증가시 방출될 가능성이 높다.

닭고기 수입량을 살펴보면, 국내 육계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1~5월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이는 수입업체 주문이 AI가 발생하기 직전인 3월까지의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6월 닭고기 수입량은 5월보다 증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닭고기 공급이 감소하여 국제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7월 이후 닭고기 수입은 육계 가격 상승 여부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월별 도계(소비)지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도계 지수	83.9	74.3	82.4	89.6	108.0	120.3	144.9	117.2	96.9	92.4	92.3	97.8
비고		질병·황사 발생					초·중복	말복				

※ 주: 도계지수는 1996~2007년까지 해당 월의 평균 도계수수를 구하고 그 평균을 100으로 함.

3. 수요

1) 평년 20% 감소 수준으로 닭고기 소비 회복세 보여

HPAI 발생 초기에는 닭고기 소비 감소가 예년의 20~30% 수준이었으나 경기지역(평택)으로 확산되면서 약 40%까지 감소하였다. 5월 초순에는 HPAI가 서울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소비 감소폭이 더 커져 최대 70%까지 이르렀다. 농협(4대 매장) 닭고기 매출액은 4월 1일 14,832천원에서 6월 12일 14,137천원으로 5% 감소한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평년 수준대비 20% 감소 수준에 머물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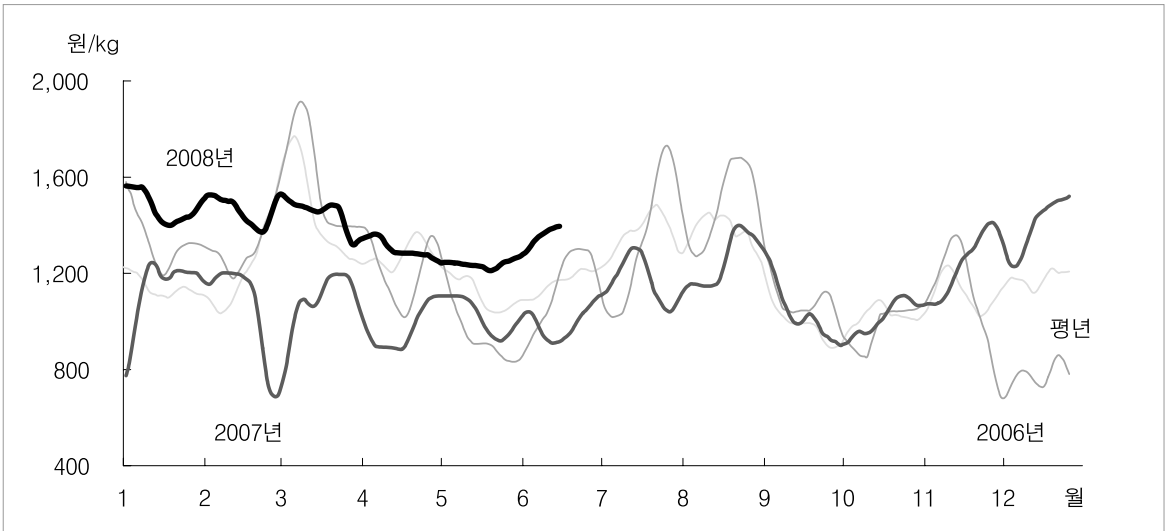
2) 여름철 이후 닭고기 소비 감소 시기

도계 지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7월, 8월은 닭고기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복이 있어 연중 소비가 가장 많은 달이다.

HPAI 상황이 안정되고 있어 더 이상 질병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소비 회복 속도가 매우 빠를 수 있다. 계절적으로 여름철 이후에



〈표 2〉 육계 산지가격(농협발표가격)



※ 주 : 평년은 03~07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 자료 :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5일 이동평균가격)

는 비수기에 접어드는 시기이다.

4. 가격 전망

1) 여름철 육계 가격은 강세 예상

HPAI 마지막 발생 시점에서 육계 가격이 회복되는데 걸린 기간은 최소 1개월로 나타났다. 현재 닭고기 수매가 마무리되었으며, 향후 종란 400만개 폐기, 종계 10% 감축(60만수) 등이 계획되어 있으나, 최근 육계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계획된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닭고기 공급 부족으로 여름철 육계 가격은 일시적으로 강세가 예상된다.

2) 9월에는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 높아

비수기에 접어드는 9월 이후에는 육계 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철에 닭고기 비축 물량이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9월로 이월될 경우 육계 가격은 큰 폭의 하락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닭고기 비축물량 소진 여부가 하반기 육계가격의 등락폭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 고유가, AI 등 업계가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반기에도 유가와 곡물가 상승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업계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업계 전체가 단합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